

'김태군 만루포' KIA, 우승까지 1승 남았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의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우승에 1승만을 남겼다.

KIA는 지난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벌어진 2024 신한 솔베르크 KBO 포스트시즌(PS) KS 4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9-2로 완파했다.

안방에서 열린 KS 1, 2차전을 내리 이겼던 KIA는 전날 3차전에서 2-4로 석패했지만, 4차전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섰다.

KIA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통합 우승에 1승만을 남겼다.

94.1%의 확률을 잡았다. 역대 4차례 한국시리즈에서 4차전까지 3승 1패가 된 경우는 17번 있었는데, 16번을 3승 1패로 앞선 팀이 우승했다.

3승 1패를 뒤집은 유일한 사례는 2013년 삼성이 썼다. 당시 두산 베어스에 1, 2차전을 모두 내준 삼성은 3차전을 이긴 뒤 4차전을 겨 1승 3패에 몰렸다. 그러나 5~7차전을 모두 이기며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IA 타선이 뜨거웠다. 홈런 두 방을 포함해 장단 13안타를 몰아쳤다.

'홈런 공장' 라이온즈파크의 이점을 이날은 KIA가 더 크게 누렸다.

9번 타자 김태군이 3-0으로 앞선 3회째기 만루 홈런을 쏘아올리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데일리 최우수선수(MVP)도 김태군에게 돌아갔다.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6회 2루타를 때리는 등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활약을 펼쳤다.

테이블테터를 이룬 박찬호와 김선빈은 각각 5타수 2안타 1득점, 5타수 3안타 1득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삼성과 4차전서 9-2로 승리

KIA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5%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6피안타(1홈런)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KS 1차전에서 5이닝 4피안타(1홈런) 6탈삼진 2볼넷 1실점으로 패투를 펼쳤던 네일은 2경기 연속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또 KS 첫 승리도 신고했다.

KS 3차전에서 솔로포만 4방을 쏘아 올리며 반격에 성공했던 삼성은 4차전을 지면서 베팅 끝에 몰렸다.

삼성에는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크게 무너지면서 조기 강판해 일찌감치 KIA에 주도권을 줬다.

원태인은 2%이닝 6피안타 3볼넷 2탈삼진 6실점으로 흔들렸다.

KS 1차전에서 5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다 비 때문에 강제로 강판해야했던 원태인은 이날 부진한 투구를 하면서 아쉬움을 씻지 못했다.

삼성은 타선이 네일 공략에 애를 먹으며 좀처럼 대포를 가동하지 못해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KIA는 1회 선취점을 뽑았다. 1회초 박찬호의 내야안타와 김선빈의 좌월 2루타로 일군 1사 2, 3루에서 나성범이 2루수 땅볼을 쳐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네일의 호투로 리드를 지키던 KIA는 3회에만 6점을 몰리며 빅이닝을 만들었다.

3회초 김선빈의 좌전 안타와 김도영의 볼넷, 나성범의 우전 안타로 무사 만루가 됐고, 소크라테스가 우중간에서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최원준의 희생번트와 이창진의 볼넷으로 다시 한 번 베이스가 가득 찼다.

그러자 삼성은 투수 교체를 택했다. 원태인을 내리고 송은범을 투입했다. 하지만 KIA 김태군이 송은범을 두들겼다.

이후 2사 만루 찬스에 타석에 들어선 김태군은 왼쪽 담장을 넘어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는 장외 만루 홈런을 작렬했다. 송은범의 몸쪽 높은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만루포로 연결, KIA에 7-0의 넉넉한 리드를 선사했다.

삼성은 4, 5회 1점씩을 만회했다.

4회말 다이아의 안타와 박병호의 몸에 맞는 공으로 일군 2사 1, 2루에서 김영웅이 우전 적시타를 날렸다.

5회말에는 선두타자 이재현이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KIA 선발 네일의 가운데 높은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왼쪽 담장을 넘겼다.

하지만 KIA는 홈런으로 응수하며 다시 점수차를 벌렸다.

6회초 1사 1루에서 소크라테스가 삼성 불펜 투수 최재홍의 몸쪽 높은 직구를 노려쳐 좌월 2루타 이치를 그려냈다.

KIA는 소크라테스의 홈런으로 9-2까지 점수차를 벌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KIA는 7회부터 장현식, 궤도규, 황동하가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추격하는 점수도 주지 않고 승부를 결정지었다. /뉴시스



지난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차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3회초 2사 만루 KIA 김태군이 만루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전북현대 흥정호, 예수병원 소아응급센터에 500만원 기부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의 흥정호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북현대 흥정호 선수가 지난 24일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 신총식 원장을 비롯해 김호권 기획조정실장, 강종대 사회사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흥정호 선수가 전한 기부금 500만원은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흥정호의 기부 활동은 지난 2017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2017년 '사랑의열매'에 첫 기부로 마음을 전했던 흥정호는 이후 2018년 같은 '사랑의열매'에 1억원을 기부하며 '아너소사이터' 가입 후 매년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의 출신 초·중·고등학교와 의도동 복지센터 등에 기부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생애리 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재한베트남인 화합의 장 'VFAK 동향컵 축구대회' 성료

익산시 금마축구공원에서 27일 재한베트남인의 최대 축제인 '제4회 VFAK 동향컵 축구대회'가 개최됐다.

VFAK동향컵 축구대회는 베트남인 커뮤니티가 모여 함께하는 연합 축구 대회로, 주한베트남 축구협회(회장 도안광비엣) 주관, 주한베트남대사관(대사 응우옌부응) 주최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2개 도시에서 참가하는 40개팀 1,000여 명의 선수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까지 3,000여 명이 찾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익산시의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지난해 맺은 인연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이 2배 가량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익산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했다.

시는 재한 베트남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화합하는 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시-완주군, 생활체육으로 '한마음'

전주·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

동일 생활권인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들이 생활체육인 파크골프를 함께 즐기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전주 온고을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전주·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주·완주 8차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대회에는 전주와 완주의 파크골프 동호인 약



500명이 참가했다. 먼저, 대회 첫날인 열린 개회식에

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양 지역의 협력과 화합을 다짐하며 참가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틀간 펼쳐진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다지며, 양 지역 간의 화합과 스포츠 교류를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

선외의 경쟁 결과 대회 남자부 1위는 김상호씨(전주)가, 여자부 1위는 설순례씨(전주)가 각각 차지했다. /김재훈 기자

K리그 유료 관중 300만788명

K리그1·2 합계... 2년 연속

흥행가도를 달리는 프로축구 K리그가 2년 연속 유료 관중 3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6일 오후 2시 킥오프한 K리그1 35라운드 강원 FC-김천 상무전에 9,383명,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천안시티FC전에 2,399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이로써 올 시즌 K리그1 누적 유료 관중은 221만1,845명, K리그2 유료 관중은 78만8,943명을 기록, K리그1~2 합계 300만788명의 유료 관중을 기록했다. /뉴시스

유료 관중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지난 시즌 처음으로 300만 유료 관중을 돌파한 K리그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넘었다.

지난 시즌에는 K리그 마지막 경기인 38라운드 종료 시점에 총 301만 1,509명이 입장했는데, 올 시즌에는 K리그 35라운드 만에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

경기 수 기준으로는 지난 시즌 46경기(K리그1 22경기, K리그2 23경기)보다 48경기 단축된 416경기(K리그1 205경기, K리그2 211경기) 만에 이뤘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장수군의의회



의장 최한주 의원



부의장 유경자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남수 의원



한국회 의원



장정복 의원



이종섭 의원